

역대 최대규모 44兆 편성... '민생·안전·성장' 집중 투자

2022년 서울시 예산안 기자회견

서북권 등 6개구 도시 인프라 구축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및 시장 "시민 삶의 질 높여준다"

서울시가 도시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미래 서울을 위한 투자에 나서겠다고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2022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3조9186억원(9.8%) 증가한 44조748억원으로 편성해 1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는 내년 예산을 민생과 일상의 회복(2조2398억원), 사회안전망 강화(3조4355억원), 도약과 성장(2조2109억원)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 기자회견을 열고 "관행적, 낭비적 요소의 재정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해 총 1조1519억원



오세훈 서울시장 1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 기자회견에서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을 절감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서울시 바로세우기 관련 민간위탁 보조사업 절감분 832억원이 포함됐다"면서 "적극재정과 재정혁신이라는 방향 아래 편성한 2022년도 서울시 예산 규모는 44조748억원이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을 통해 서울시는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해 촘촘하게 지원할 것"이라면서 "지원이 필요

한 지역에 더 많이 투자하고 안전수준 제고와 기후변화 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시는 재정혁신으로 절감한 예산을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12억원), 보훈수당 대상자 확대(158억원),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152억원) 등에 사용키로 했다.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45억원), 민간 어린이집 영·유아반 지원(75억원)을 통해 돌봄 서

비스 질을 높이고 공중화장실 안전시설 설치 지원(4억원), 공원 가족놀이터 조성(32억원)으로 시민 편의시설을 개선하겠다고 예고했다.

오 시장은 "특정 시민단체에 집중된 특혜성 예산을 줄여 다수 시민 삶의 질을 높여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사각지대 없이 튼튼한 사회 안전망으로 시민 삶을 지켜나가기 위해 영유아 아동부터 청년, 중장년,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모든 출산가정에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에 691억원을, 영유아 보육료 보조에 5612억원을 투자한다. IT와 소프트웨어 분야 실무인재를 양성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운영에 172억원을, 청년 월세 지원에 908억원을 투입한다. 저소득 어르신 급식 제공에 326억원, 어르신일자리·사회활동지원에 1818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그간 시의 재정지원이 부족했던 지역에 투자를 집중해 도시 인프라를 구축

한다. 울곡로 구조개선과 충무로 도로 공간 재편이 이뤄지는 서북권과 도심권 6개구에는 1조5999억원을, 신림-봉천터널 건설과 서서울미술관 조성이 진행되는 서남권 7개구에는 2조4045억원을 쓴다. 동북권 8개구에는 동북선 경전철 건설과 봉화산 도로확장 등에 2조9930억원을, 동남권 4개구에는 강남순환도 시고속도로 건설 등에 1조637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시대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예산제와 기후예산제를 도입, 시민 안전 보호와 탄소 중립 달성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시정과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오 시장은 "소득과 무관하게 무차별적으로 1인당 얼마씩 주는 현금성 지원을 서울시는 최소화했다"면서 "이번 예산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와 청년계층 두 대상을 배려하고 다시 일시켜 세우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G밸리', 융복합 산업단지로 다시 태어난다

서울시 13개 특별계획 구역 지정 도로·녹지공간 등 인프라 확충

서울 구로구 구로동, 금천구 가산동 일대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 융복합 산업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한국수출(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G밸리는 부지 면적 192만2261㎡에 입주기업 1만2000여개사와 종사자 약 14만명이 밀집한 서울시 최대 산업단지다. 시는 해당 부지에는 문화·복합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는데 이번 국가산업단지계획 수립을 계기로 산업교류 혁신공간과 기업·종사자 지원시설, 도로

용량, 녹지공간 등 산업 지원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시는 G밸리에 기업간 교류 및 연구 개발 지원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13개의 전략거점을 선정, 특별계획(가능) 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원거점 부지는 이용도가 낮은 공공용지와 역세권 내 노후 민간 공장부지가 대상이며,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산업시설과 지원시설이 함께 입지할 수 있는 복합용지로 용지변경이 가능해진다.

또 지원거점 개발 시 공공부지는 연면적 30% 이상 R&D센터, 창업지원시설 등의 '산업교류 혁신지원 공간'을 의

무 도입하도록 했다. 민간부지는 용지변경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지가차액 50% 기부채납)를 통해 산업혁신 지원 공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부족한 인프라를 개선토록 했다. 시는 산업교류 혁신지원공간에 중앙부처의 산업지원 사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녹지 확대를 위해 시는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안에 가로정원을 만들고, 13개 전략거점에는 전체 부지면적의 15% 이상을 공원형 공개공지로 조성토록 했다.

교통체계도 보완한다. 시는 G밸리 내부 3~4차선을 5~7차선으로 늘리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창동역 일대에 '서울사진미술관' 조성

서울시 이달 착공, 2023년 개관 목표

서울시는 도봉구 창동역 일대 서울광역푸드뱅크 부지에 '서울사진미술관'을 조성키로 하고 이달 착공한다고 1일 밝혔다. 오는 2023년 12월 개관한다는 목표다.

서울사진미술관은 140여년 한국 사진사를 정립하는 최초의 공공미술관이다. 사진매체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 사진·영상 기반의 다양한 전시와 체험이 이뤄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시는 전했다.

서울사진미술관은 연면적 7048㎡,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다. 시는 작년부터 현재까지 사진, 필름 등 1만2000여점의 소장품을 수집했다. 1950~1980년대를 중심으로 당시 시대



서울사진미술관 조감도. /서울시

상을 엿볼 수 있는 풍경사진과 인물사진, 사진사 연구에 유의미한 작품, 사라질 위기에 놓인 시각예술문화 보존을 위해 꼭 필요한 작품 등을 중점적으로 모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서울사진미술관의 건립 과정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이달 11~12일 진행한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오는 15일부터 신청 접수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입주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선택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

의 일부를 지원,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 공고일(11월 1일)을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496만원 이하여야 한다.

전체 모집 대상자의 20%인 500명은 신혼부부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 신

혼부부는 보증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SH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원 이하인 주택이다.

신청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58 | 해질 / 17:33

11월 2일 (화) / 음력 : 9월 28일

수도권 날씨 / 7 ~ 15°C

운풍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3/15, 동두천 4/16, 가평 3/16, 파주 3/15, 서울 7/15, 양평 6/16, 용인 7/15, 수원 7/15, 평택 4/16, 인천 8/15, 백령도 10/13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이번주 FOMC 빅 이벤트"... 테이퍼링 시작하나
▲ 텐센트·화웨이 저격 中 개인정보보호법, 오늘부터 시행



▲ 전세계 코로나 사망자 곧 500만명 넘는다... 존스홉킨스대 집계
▲ "뉴욕증시, 연말 사상 최고치 갱신하며 강세... 내년엔 붕괴" / 사진 뉴스



▲ 바이든 "미국, 트럼프 핵합의 탈퇴 결정으로 계속 고동" / 사진 뉴스
▲ 美 최고법원 낙태금지법 변론 청취... 30년만에 판례 변경 여부 주목